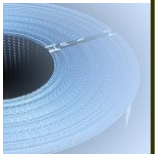


2008. 6. 24

POSRI CEO REPORT

베트남 정치환경 특성과 시사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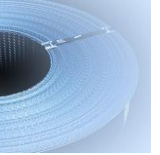
지역연구센터

박경서, 나희량

〈베트남 정치환경 특성과 시사점〉

- 베트남은 당 정치국이 국가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, 최근 개혁파가 부상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개혁과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 중
 - 도이머이(刷新) 시행 20여 년이 지나면서 실용주의 개혁파가 부상하고 자본가의 입당 허용, 당내 민주화, 국회 기능의 강화 등 정치개혁도 진행
 - 지방 정부도 시장개방 및 선거의 활성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발언권 및 대응력 점차 강화
- 베트남의 정치 문화는 단일 정당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, 계파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당내 의견수렴, 원로 정치인들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
-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증대, 부정부패 문제 등은 부분적, 지역적 불안 요소이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적 정치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Executive Summary



목 차

I. 정치권력 구조	1
II. 권력구조의 변화 및 정치발전	4
III. 정치문화의 특성	6
IV. 정치환경 전망과 문제점	8

I. 정치권력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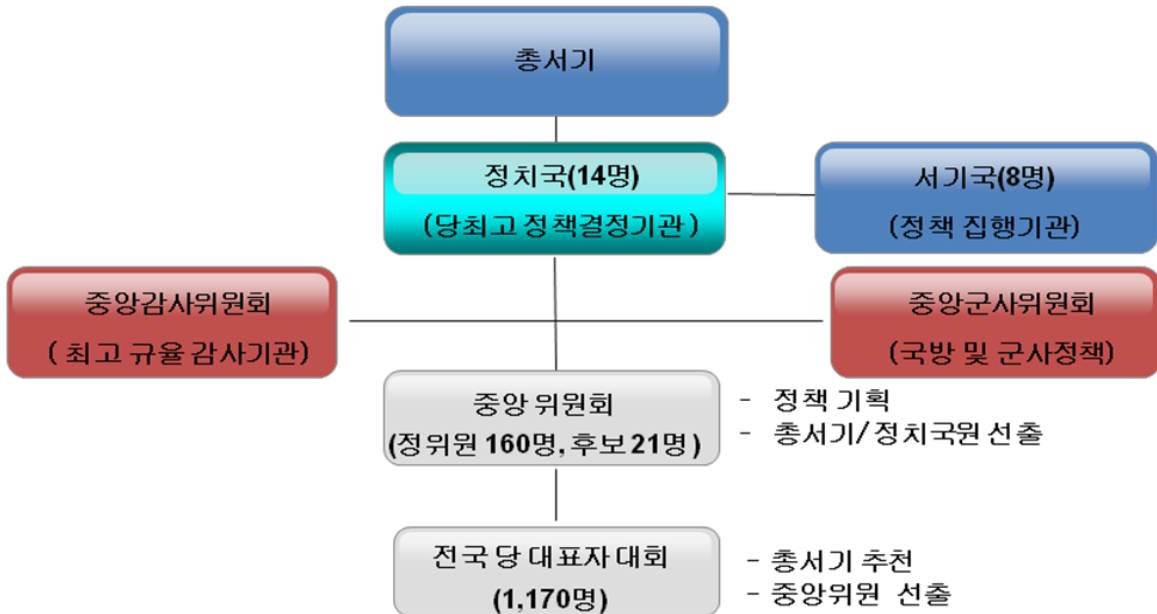
-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 지배국가로 당 정치국위원이 정부, 국회, 군부 등 국가의 중요직책을 겸임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부를 형성
 - 정치국은 총서기, 국가주석, 수상 등 3인의 최고 지도자뿐 아니라 국회의장,公安부장관 등 국가 주요기관의 수장을 겸직하고 있는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최고 정책결정 기관
 - 공산당 총서기 등 정치국 위원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은 전국 당 대표자대회(전당대회)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
 - 정치국 위원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, 연령별, 계파별 안배관행에 따라 선출되어 왔으나, 2006년 전당대회에서 남부 출신, 젊은 층의 개혁파들이 부상

☞ 전국 당 대표자 대회(전당대회)

당의 지역별, 직능별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5년마다 당의 과업에 대한 평가, 새로운 지도부의 인선, 향후 국가의 주요 정치, 경제적 방향 등을 논의하고 결정함.

현 지도부는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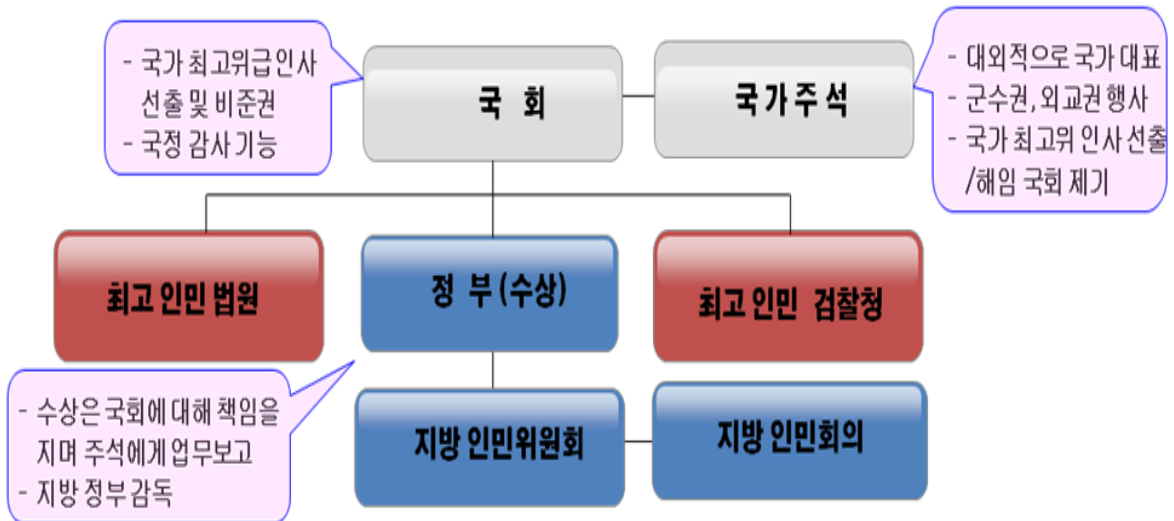
[공산당 조직도]



※ 공산당의 지위(헌법 제 4 조): “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따르는 노동자 계급과 전체 민족의 권리에 충실한 대표이며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세력이다”

- 국회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 기관으로 입헌권, 입법권, 국가기관에 대한 최고 감찰권을 보유하고, 당에서 선출된 국가 최고위급 인사의 최종 선출권 보유
-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입법, 행정, 사법 3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는 당의 노선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입법기능과 인사기능을 행사
- 중앙 정부는 국가주석이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권 및 군수권을 행사하고, 수상이 각 부처장관을 지휘 감독하고 내정을 책임지는 2원 집정부제와 유사한 형태
- 사법제도는 최고인민법원과 지방인민법원의 2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, 특별법원으로 군사인민법원이 있고, 검찰청도 정부 및 법원으로부터 독립기구로 존재

[국가 조직도(헌법규정)]



※ 헌법 상 규정에 따라 도출해본 국가조직도. 실제는 당 정치국에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당의 지침을 전달·감독함

☞ 베트남의 권력구조

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권력구조와 매우 흡사하나 중국은 후진타오가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하여 권력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, 베트남은 당 총서기(농 득 마인)와 국가주석(응웬 민 쩌엣, Nguyen Minh Triet)을 분리한 분점형 권력구조임.

II. 권력구조의 변화 및 정치발전

□ 2006년 전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인 농 득 마인(Nong Duc Manh)을 제외한 5명 중 4명이 물러나면서 상위 핵심고위직을 남부 출신 개혁파가 차지

○ 북부 출신 당 총서기의 전통은 지켜졌지만, 30년 넘게 불문을 처럼 지켜져 온 총서기는 북부, 주석은 중부, 수상은 남부라는 권력구조가 국가주석에 남부 출신이 선출됨으로써 변화

□ 1986년 도이머이 경제개혁 이후, 20여 년이 지나면서 자본가의 입당 허용, 하층 당원 의견 수렴, 다당제에 대한 조심스런 논의 등 당내 민주화가 진전 중

○ 당 조례를 개정하여 그간 부르조아 계급으로 인식되어 온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고, 당원의 개인기업 경영을 용인함으로써 도이머이 이후 확산되고 있는 당원들의 영리 활동을 공식 인정

○ 정치국의 권한 일부를 당 중앙위원회와 당 대표자대회에 이양하는 등 중하층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, 일정 범위의 당내 비판을 수용하는 등 당 운영의 민주화가 진전 중

☞도이머이(刷新)

1986년 제6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이후 베트남 경제가 대외개방, 경제개혁 등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됨.

□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것에 대해 국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증대

- 종전 중앙당의 일방적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 민의를 반영한 정책과 법률을 제시하고 정부권력을 견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
- 공산당내 실력자인 공안부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질타를 당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
- 유권자들이 유권자와 후보자 회의를 통해 지역적 이익을 실현 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회의 지역대표 기능 활성화 및 박사학위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전임의원이 증가하여 입법 부로서의 전문성 강화

☞ 공안부

정보, 보안, 경찰 등 안보관련 조직을 관장함으로써 공산당, 군부와 더불어 현 베트남 정권을 지탱하는 3대 중추 기관

□ 지방 정부는 행정조직과 당 조직을 통하여 중앙의 견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개방과 함께 주민의식의 증대로 발언권 강화 및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

- 지방 정부는 행정라인을 통해 중앙 정부의 지시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조국전선 등 당의 조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견제를 받음
- 따라서 지방 정부가 중앙의 지시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는 않지만 개방과 함께 최근 지역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익우선 노력 점차 증가
- 특히 인민회의 의원 및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대부분 토착세력의 대표자들이고 인민회의 의원 선출 선거가 점차 다수 후보자 간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개발 관심 증가

Ⅲ. 정치문화의 특성

□ 일당주의의 정치구조로 당의 이념노선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주장의 경우 불이익 사태 발생

- 총서기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던 쩌 수언 바익(Tran Xuan Bach)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를 주장하다 보수파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직에서 물러남 (1990년 제8차 전당대회)
- 친 서방주의자로 알려진 응웬 고 탁(Nguyen Co Thach) 외무장관은 대미 수교를 강력히 주장하다 친 중국 보수파들에 의해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몰려 정치국에서 퇴임(1991)
-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신문 및 일부 개혁성향의 신문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의 리더십과 정책의지를 비판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논의 전개

□ 일당체제 내에서 고위층의 인맥에 의한 계파가 형성되고 계파간 견제와 균형, 그리고 계파 대표들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는 정치권력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

- 계파대립의 주요 요인은 노선 대립, 경쟁자 간의 갈등, 지역적 출신 성분 등 다양하나, 도이머이 이후에는 실용주의 개혁파와 보수주의 계파간의 대립 중심으로 전개
- 개혁파는 현 응웬 쩌 중(Nguyen Tan Dung) 수상의 선출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故 보 반 끼엣(Vo Van Kiet) 전 수상과 판 반 카이(Pan Van Khai) 전 수상이 남부 출신을 등용하여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력 구축
- 보수파는 레 주언(Le Duan)과 레 득토(Le Duc Tho) 중심으로 도이머이 이전까지 당내 최고 실권세력이었으나, 이후

위촉되었다가 도 무어이(Do Muoi), 레 카 피에우(Le Kha Phieu) 등이 최고위 지도자를 역임하면서 회복

□ 농경문화적 요소에 의해 안정 및 보수 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강대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낸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정치문화

- 계속된 강대국(중국, 프랑스, 미국 등)의 침략과 점령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국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적 경험과 과정 속에서 구부러지지만 꺾이지 않는 유연성 획득
- 극단을 피하는 정치문화로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자에 대해 단호한 숙청이나 정치적 보복보다는 현직 실무에서 손을 놓게 하는 등 징계 수위가 매우 유연

IV. 정치환경 전망과 문제점

□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산당 중심의 정치 체제와 유연한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급속한 정치적 변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

- 아직 혁명의 세대가 생존해 있는 가운데 당 수뇌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민들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적 단결을 이루는데 동의
- 일부에서 일당제의 폐해를 제기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 및 정치적 언론의 자유 등 급격한 개혁조치는 없을 전망

*“중국의 개혁방식을 따라왔던 베트남은 중국처럼 여전히 1당 지배를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에 있어서는 중국을 앞서고 있다”
(중국 東方早報)

- 공산당 중심의 권력 집중에서 점차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국가주석, 수상, 국회의장의 권력 분점 및 상호견제는 강화될 전망
- 급속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
- 종전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농민들의 시위(1997)와 소수 민족들의 저항(2001)이 있었고, 최근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진정

박경서 (e-mail: kspak@posri.re.kr)

나희량 (e-mail: heeryang@posri.re.kr)